

고단백·저당질 상품 증가, 매장 내 코너 확대되는 일본

급속히 확대되는 저당질 상품시장

일본 국내 마케팅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저당질, 당질 오프 등의 관련 상품 시장규모는 2021년도에는 2020년 대비 6.3% 증가한 612억 엔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2년에는 6.9%가 증가한 654억 엔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간식으로 섭취하는 쌀과자, 쿠키, 초콜릿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품군을 포함할 시에는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매장 관계자는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하여 관련 코너를 만든 일부 점포에서는 매출이 전년대비 두자리 이상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저당질, 고단백질 '로카보(ロカボ)' 상품



소바 '당질 0g 면 소바풍 면'



저당질 'スパイス 키마카레'



모리나가 '저당질 푸딩'

주식 면류, 가공식품에서부터 디저트류까지

식품 제조회사인 기븐(紀文)식품의 '저당질 0g면'은 발매 이후 매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상품의 증가, 오트밀 등 타 카테고리 다이어트 상품과 PR상품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증가한 탓에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올해 가을과 겨울에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동소바 풍면(同そば風麵)'을 투입,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을 출시하여 자사상품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대형 편의점 체인 로손에서는 당질이 14.9g 이하인 인스턴트 카레 '스파이스 키마카레(スパイスきわだつキマカレー)'를 전국 점포에서 발매, 로카보(Low cabo) 상품의 라인업을 강화하였다. 상품은 유명 카레전문점과 공동 개발하여 본격적인 카레의 맛을 재현하면서도 당질 오프 등 건강요소도 더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상품을 증가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리나가유업(森永乳業)의 '맛있는 저당질 푸딩(おいしい低糖質プリン)' 또한 발매 이후 매출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남성 소비자의 증가로 새로운 소비자층을 획득하였는데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1) 로카보(ロカボ) : Low Carbohydrate, 탄수화물의 등에 포함된 당질을 제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느슨한 당질제한을 의미함

먹자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칠드 상품과 디저트의 표준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저당질 디저트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생산을 두 배로 증가하였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은 기존 제

품인 커스터드 맛 푸딩으로 저당질 디저트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새롭게 치즈케이크 맛 푸딩을 발매하여 소비자의 선택지를 증가시킬 것이라 전했다.

저당질, 고단백 상품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

특히 많은 당질을 포함하고 있는 주식, 빵과 면류에서는 식물 섬유질로 당질 오프를 내세운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당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쌀은 보리를 50% 섞어 식이섬유를 강화한 '당질 25% 오프, 식사 3식'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제과기업인 에자키 글리코(江崎グリコ) 또한 저당질시장 경쟁에 뛰어 들었다. 8월, 법인을 대상으로 저당질 도시락배달 서비스 'SUNAO딜리버리(SUNAOデリバリー)'를 개시하였는데 도시락 메뉴는 한끼 당 당질이 40g 이하인 주식, 단백질, 셀

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일 오전 9시까지 주문할 시에 '오피스 글리코' 배송망(오사카역 주변)을 통해 오전 중에 받을 수 있다. 당뇨병 등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 그 타깃이다.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홍보 등을 통해 향후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新大阪駅・大阪駅周辺より、順次サービス拡大予定

SUNAO DELIVERY

働くみなさまの健康を
気遣った「適正糖質」※1で
おいしいお弁当を、
オフィスまでお届け!

「SUNAOデリバリー」は、グリコの法人向けお弁当宅配サービスです。
※1. 「食・薬・健康協会」は、1食で摂取する糖質量を20〜40g、間食は10g以下にする「適正糖質」を提唱しています。

導入をご検討の企業担当者・健康経営担当者様へ
サービスのお申込み・お問合せはこちらから >

<SUNAO딜리버리 상품>

작성자 오사카지사 박혜빈

Key Point

일본 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저당질, 고단백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탄수화물 등에 포함된 당질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줄여나가는 '로카보(Low cabo)'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향후 관련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탄수화물을 낮춘 제품 출시가 활발하므로, 일본의 트렌드와 부합하여 신규 상품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제품군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